

“긴장감에 웃음까지... 무겁지 않은 형사극”



JTBC 새 월화드라마 '모범형사' 강도창 역 손현주
“특별할 것 없는 주변의 흔한 인물... 결과 좋아 시즌2 나왔으면”

“결과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모범형사'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일 방송을 시작한 JTBC 새 월화드라마 '모범형사' (밤 9시30분)는 배우 손현주(55)가 '추적자 더 체이서(THE CHASER)'(2012), '황금의 제국'(2013)의 조남국 PD와 오랜만에 의기투합하는 드라마다. 이날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손현주는 조 PD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만의 각오를 이처럼 밝혔다.
손현주가 맡은 역할은 형사 강도창이다. 극 중 강도창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체포한 사형수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대해 “특별할 것 없고,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라며 “(형사의) 생활감을 살리기 위해 연습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드라마는 굉장히 쉽다. 쉽게 흘러가면서 경쾌하고 상쾌하다”며 “이런 드라마가 저도 오랜만이다. (이전까지) 무거운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이번엔 형사극이라고 해도 무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승조(본명 장현탁·39)는 손현주와 호흡을 맞추는 또 다른 형사로 분한다. 손현주가 ‘처음 하는

형사 연기가 아닌 것 같다’고 지켜세우자 그는 “손현주 선배님은 배우들을 ‘연기부’라고 부르는데 선배님이 연기부 부장으로서 우뚝 서서 굉장히 든든했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동백꽃 필 무렵’부터 ‘스토브리그’,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여 오정세(43)는 다시 한번 약역으로 분한다.
자신의 캐릭터를 “나쁜 사람”이라고 간단히 소개한 그는 “이해가 가거나 동정이 가는 약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역이 있는데 내가 맡은 오정세라는 인물은 후자에 속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문사 사회부 기자와 부장을 각각 연기하는 이엘리야(30)와 지승현(38) 등이 드라마에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조남국 PD는 “손현주와 다섯 번째 작품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내 페르소나”라며 “주인공만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 애정을 갖고 최대한 잘 그려려고 노력했다. 형사극이 갖고 있는 긴장감 외에도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경쾌한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한다. 연기를 보는 맛이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재석×이효리×비 막강 팀워크 ‘썩쓰리’ 25일 데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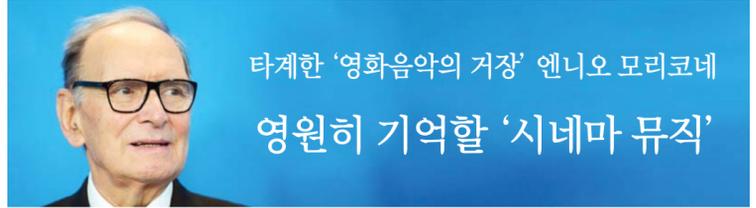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의 흥성 그룹 썩쓰리(SSAK3)가 오는 25일 데뷔한다고 MBC가 7일 밝혔다. 유재석, 이효리, 비(정지훈)로 구성된 썩쓰리는 지난 4일 방송에서 커버곡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를 통해 막강한 팀워크를 뽐냈다.

오는 11일 방송에선 신곡 ‘다시 여기 바닷가’ 녹음과 안무 연습에 돌입한 썩쓰리의 모습이 그려진다. 스타PD 김태호가 연출하는 ‘놀면 뭐하니?’는 고정 출연자 유재석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송창의, ‘동상이몽2’ 합류 미모의 아내·딸 최초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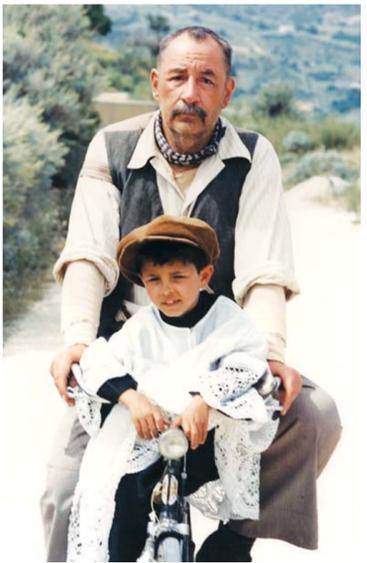
SBS TV 스타부부 관찰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은 배우 송창의와 그의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합류한다고 7일 밝혔다.
송창의는 2016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네 살 딸을 두고 있다. 송창의는 몇 차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딸 바보’ 면모를 드러냈지만, 가족과의 일상을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프리포즈부터 결혼 5년 차 부부의 리얼한 일상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첫 스튜디오 녹화까지 마친 송창의는 그동안 작품에서 보여줬던 반듯한 이미지와 달리 다소 엉뚱하고 장난기 많은 모습으로 MC들을 쥐락펴락했다는 후문이다.
송창의 부부의 일상은 오는 20일 밤 10시 20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타계한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영원히 기억할 ‘시네마 뮤직’

‘미션’ ‘황야의 무법자’ 등 500편 참여
한국인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 작곡가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6일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캐리비안의 해적’으로 유명한 영화음악가 한스 짐머 등 할리우드 관계자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20세기 최고의 영화 음악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애초 그는 클래식 전공자였다. 재즈 트럼펫 연주자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음악을 시작해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트럼펫과 작곡을 전공했다. 생활고 때문에 방송·영화 음악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클래식 전공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가명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영화 ‘시네마 천국’

1961년 루치아노 살체 감독의 작품으로 영화 음악에 데뷔해 ‘스파게티 웨스턴의 아버지’로 알려진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황야의 무법자’(1964)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뒤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1984) 등 대부분의 작품을 함께 했다.
모리코네는 ‘황야의 무법자’에서는 휘파람 소리로,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는 장중한 팬플루트 선율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 천국’(1988)이나 로랑 조페 감독의 ‘미션’(1986)도 모리코네의 음악과 함께 기억되는 대표작들이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500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만들어왔지만, 대표적인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와의 인연은 박했다. ‘천국의 나날들’(1978), ‘미션’(1986), ‘언터처블’(1987), ‘벽시’(1991), ‘말레나’(2000)로 다섯 차례 음악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2007년 공로상을 받고도 9년이 지난 2016년 여든여덟의 나이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더 헤이트풀’로 음악상을 받았다.

블러임으키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음악을 작곡할 때 상을 생각하고 곡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다섯 번이나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큰 행운이다. (아카데미 공로상은) 내가 영화에 제공한 작업 전체를 위해 주는 상이라 더욱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지난 6일 뉴 비벌리 시네마 SNS를 통해 엔니오 모리코네 생전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엔니오 모리코네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영화 ‘장교: 분노의 추적자’, ‘헤이트풀’ 등을 함께 작업했으며 엔니오 모리코네는 ‘헤이트풀’으로 오스카(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과의 인연도 적지 않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음악 작곡가’로 꼽히며 수백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고, ‘미션’은 국내에서 기획해 뮤직컬로 제작되기도 했다. 2005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내한 공연은 공연이 성사됐고, 부산국제영화제도 찾았다. 2009년에 다시 한번 내한 공연을 했고, 2011년 데뷔 50주년 기념 투어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그는 2007년 첫 내한 당시 인터뷰에서 “영화음악은 영화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그 감동을 증폭시켜 주는 배경음악이 없다면 그 영화는 그만큼 감동을

‘인터스텔라’,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의 음악을 담당했던 한스 짐머는 자신의 SNS에 편지 형식의 추모 글을 올렸다. 한스 짐머는 “엔니오, 가장 처음 들은 그의 음악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영화음악 작곡가가 될 결심을 한 적이 없다. 엔니오와 세르지오 레오네가 나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해줬고, 그렇게 결심하게 만들어줬다. 엔니오는 나에게 가장 심플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멜로디가 가장 쓰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줬다. (중략), 굿바이, 마에스트로”라고 추모를 전했다.
구혜선도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엔니오 모리코네 선생님을 추모하며”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연합뉴스

KBS2 드라마 ‘비밀의 남자’ 강은탁·엄현경·이채영 출연

KBS2 TV는 새 저녁일일드라마 ‘비밀의 남자’에 배우 강은탁, 엄현경, 이채영이 출연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사고로 일곱 살의 지능을 갖게 된 한 남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억을 마주하며 복수를 꿈꾸는 이야기다. 그를 둘러싼 쌍둥이 자매의 사랑과 욕망,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준다.
‘일일극의 황태자’로 불리는 강은탁은 비밀을 품은 남자 이태풍을, 엄현경과 이채영은 태풍과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함께 자란 이란성 쌍둥이 자매 한유정, 유라를 연기한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엄현경, 강은탁, 이채영.
‘위험한 약속’ 후속으로 다음 달 말 방송.
/연합뉴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